



# 불교의례의 꽃, 수륙재 복원이 바로 민족문화수호

수륙재는 영산재와 함께 대표적 불교의례다. 점차 수륙재를 전승하는 스님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수륙재의 선행빈도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사찰에서 수륙재를 선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최근 동해 삼화사에 이어 진관사에서도 수륙재의 복원이 시도되면서 수륙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의 자문을 토대로 수륙재에 관해 살펴봤다.

## 수륙재의 의미

경전에서 수륙재의 의미는 '아귀를 구제하기 위해 바라문선에게 공양하고, 아귀에게 시식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수륙재'는 '물과 물에서 죽은 고혼을 위한 의식' 또는 '물과 물을 떠도는 외로운 고혼을 위한 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륙이라는 단어로 인해 의미의 혼선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연담대사(인하루)>의 '수륙법어'에서 수륙재에서 수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십법계 중 모든 불·성문·연각·보살, 이 네 성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청정하다. 그래서 물[水]에 비유한다. 그리고 천도·인도·수라·방생·아귀·지옥의 육법은 평범하기 때문에 더럽다. 그래서 육지[陸]에 비유한다"고 수륙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수륙재의 본래의미는 십법법계의 바라문선과 아귀, 성인과 범부, 깨달은 성인과 미혹한 중생, 선과 속, 진제와 속제, 명계와 양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등 모두가 둘이 아닌 하나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 자리에 모여 법식을 베푸는 제회를 말한다.

## 수륙재의 역사적 배경

수륙재는 양 무제(502-549)가 천감사년(天鑑四年, 505)에 처음으로 선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선행된 최초의 수륙재는 문헌 기록으로 볼 때 고려 광종 19년에 선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서 초기에는 국행으로 선행됐다. 점차 억불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왕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선행됐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성행하게 된다. 후기로 가면 지속적인 억불을 넘어 폐불 정책의 영향으로 수륙재는 사자의례의 통칭적 경향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 조선시대 국행수륙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선행됐다. 처음에는 조선의 개국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려왕실의 왕씨를 위해 견암사, 관음굴, 삼화사 세 곳에서 국행으로 선행됐다. 이후 전염병이 들거나 악질되지 구병을 위해, 축성공사에 동원되었다가 죽은 역부의 혼령을 위안하기 위해, 임진왜란 등 각종 전란에서 전사한 자를 위해, 나라의 세곡을 운반하는 조전선 운항하다 배가 침몰하게 되어 죽은 자를 위하여 선행됐다. 또한 왕실에서 선왕·선비의 추천(追薦)을 위해 국행으로 수륙재가 선행되었다. 국행수륙재가 폐지된 이후에도 민간에서의 수륙재는 지속적으로 선행되고 있다.

## 수륙재의 절차

수륙재의 의례는 수륙도량을 열기위한 준비의식으로 시련의식·대령의식·괘불이운의식·조전점안의식 등이 선행된다. 시련의식은 수륙도량의 결계 경계인 일주문 앞까지 나아가 수륙법회를 증명할 불보살님과 호위할 신중을 모셔오는 의식을 말한다. 대령의식은 고혼들에게 간단하게 음식을 대접하며 본 의식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의식을 말한다. 수륙재의 본의식이 쇄수결계의식으로 부터 시작된다. 쇄수의식은 범수를 도량(또는 단)에 뿌려 청정하게 하는 의식을 말하며, 결계의식은 청정한 수륙도량의 경계를 정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리고 사자단의식이 진행된다. 사자는 천상의 부서를 지니고 인간세상을 살피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자로 해(年)를 주관하는 사천사자, 달(月)을 주관하는 공행사자, 날(日)을 주관하는 지행사자, 때(時)를 주관하는 염마사자 등 사직사자(四直使者)를 말한다. 이러한 사직사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 즉 '수계'와 '륙계'에 수륙도량이 마련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어서 오로단의식이 진행된다. 오로단의식은 수

륙도량을 공간적으로 활짝 여는 의식을 말한다. 다음 본격적인 의식으로 상단의식이 진행된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성문과 연각 등 사성(四聖)을 청하여 공양 올린다. 이어 중단의식이 진행된다. 천신·천룡 등 천계중(天界衆)과 땅과 허공에 있는 지계중(地界衆), 그리고 염마계(閻魔界)의 명군(冥君) 등을 청하여 공양 올린다. 다음 하단의식이 진행된다. 먼저 하단의 대상을 청하여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시작한다. 목욕을 마치고 상위와 중위에 나아가 공양을 올리고 하위의 고혼이 공양하는 의식이 진행된다. 공양을 마치고 고혼을 대상으로 설법 수계하는 의식으로 하단의식이 마쳐진다. 끝으로 봉송회향의식이 진행된다. 수륙도량에 모셨던 위목과 번, 의식에 쓰인 소문과 방문, 장엄에 쓰인 각종 지화·금전·은전·주방공사·반야용신 등을 태우며 보내드리는 봉송의식으로 수륙재를 마치게 된다.



지난 2009년 동해 삼화사에서 선행된 국행수륙대제

## “불교의례, 불교사상의 눈으로 봐야”


“의례 자체를 수행의 방편으로 불교 사상을 보다 반영하는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불교의례가 수행의 방편으로 치러지는 경우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조석예불을 비롯한 일상 의식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불교의례는 주로 사찰 불사적 목적을 띤 의례와 공연적 목적을 띤 의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사진)은 이러한 의례의 변천에 대해 불교사상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근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미등 스님은 불교의례연구 전문가로 고려대에서 민족학을 연구하며 의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륙재 복원에도 힘쓰고 있다. 미등 스님은 오늘날 불교의례에서는 불교의례가 갖는 본래기능이 퇴색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그 원인으로 선종심의 불교문화로 인한 의례의 쇠퇴, 불사중심의 의례 발달, 기능·공연중심의 전문화를 들었다. 스님은 “의례는 하나의 수행체계임에도 오늘날 의례는 구복적 성격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불교의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수행법의 하나로서 의례의 본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런 의례의 변질이 관례화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님은 “일상 의례의 집전자가 대부분 범람이 어린 스님들로 범회의식에서 주지스님이나 어른스님이 의례의 끝부분에 등장하여 축원이나 설법을 한다. 의례 자체를 소

홀히 하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저변에는 의례를 하근기로 여기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의 수행법이 다양함에도 언제부터인가 참선을 상근기로 나머지를 하근기로 여긴 인식이 이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인식이 의례의 중요성을 놓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의례·의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복원과 재현 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스님은 이런 과정에서도 기능중심의 전문화로 인한 종교 본연의 신성성 상실을 경계했다. 스님은 “재현과 복원이란 기능적 전문성에 매몰된 나머지 본래 의미를 놓친 경우가 많다”며 “의례와 의식이 지니는 의미를 면밀히 연구해 이를 기반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계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해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